

대구광역시



단체장 일정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22일 오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22일 오후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에서 열리는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석한다.

月刊 정치와 사람 골독자들 결으로 !

대구·경북 8개 시·군 빗물처리대책 하세월

우수유출저감대책 미수립 지자체 현황

연번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시기
1	충청북도	괴산	2011-10-13
2	경상북도	영양	2012-07-05
3	경상북도	포항	2013-04-01
4	충청북도	옥천	2013-06-18
5	경상북도	청도	2015-01-03
6	강원특별자치도	고성	2015-01-06
7	대구광역시	군위	2015-02-25
8	전라남도	순천	2015-03-04
9	경상북도	봉화	2015-03-04
10	울산광역시	울주	2015-06-11
11	전라남도	장흥	2015-06-11
12	전라남도	무안	2015-07-15
13	전라남도	함평	2015-10-22
14	전라남도	구례	2015-12-24
15	경상북도	성주	2016-02-0
16	충청남도	홍성	2016-02-22
17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2016-05-19
18	전라남도	진도	2016-08-04
19	대구광역시		2016-10-10
20	전라남도	곡성	2016-11-17
21	강원특별자치도	동해	2017-01-03
22	경상북도	울진	2017-01-03
23	경상북도	칠곡	2017-01-03
24	인천광역시	옹진	2017-01-19
25	경상북도	울릉	2017-01-25
26	인천광역시	강화	2017-02-07
27	경상남도	사천	2017-04-13
28	경상남도	진주	2017-04-24
29	강원특별자치도	속초	2017-12-20

포항시 10년 지나도록 대책 無 범위만 지자체 재정 지원 절실

대구·경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폭우 대비 빗물처리 대책 수립이 하세월이다.

이 사실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전북 익산시)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 지자체 166개 가운데 아직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71곳이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계획을 수립 중인 지자체는 42곳이다.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다. 대구시와 군위군, 포항시 영양·청도·봉화·성주·울진·칠곡·울릉군이 우수저류시설 설치 계획 미수립 지자체에 포함됐다.

포항시(2013년)는 10년이 지나도록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강제적으로 배수해 침수예방 핵심기능을 하는 배수펌프장 2459개소를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 및 농어촌공사와 함께 관리

중이다. 하지만 농촌 지역 배수펌프장 1026곳 중 722곳은 내구연한이 도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인 1928년에 설치된 경남 밀양시 수산 배수펌프장, 제1공화국 시절인 1955년에 설치된 경남 창원시 대방배수펌프장 등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시설들도 있었다.

50년에 한 번 찾아올 폭우에 대비하는 우수저류시설의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이 29곳이다.

공사비 절감을 사유로 30년 또는 40년 빈도로 하향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29곳 우수저류시설의 전체 용량은 36만 1508톤, 책정된 예산은 3522억원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29개 지자체의 법 위반에 대한 경고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 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 대책을 수립,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성용 기자

오늘의 국감

2면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대구·경북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수두룩

3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경북 성범죄 증가 전담인력 밀바닥



함찬출발 '대구경북특별시' 우동기(왼쪽부터) 지방시대위원장, 이철우 경북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련 4차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북도제공)

대구경북 신축 아파트... 알고보니 부실투성이

대구경북 아파트 입주 전 사전 점검 보수요청 급증 대구·경북 64만9840건... 전국서 나란히 4·5위 차지 건설사 부실시공 신뢰추락

대구경북 신축아파트가 부실투성이이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아파트 입주전 사전 점검 하자보수요청이 폭증했다.

대구경북 아파트 보수요청건은 64만9840건이다. 대구는 32만898건, 경북은 32만8942건이다. 59만5283건(대구 27만5862, 경북31만9421건)이 하자보수처리됐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하자가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는 '사전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보수를 요청한 건수가 지역별로 3년간 최대 10배 이상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울산 울주군)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이다. 이 결과 지난해 16개 시도별 '입주전

하자보수 요청 건수가 481만78건이다. 2021년 139만3581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기도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인천 144만1898건 △충남 68만5484건 △부산 49만8286건 △경북 32만8942건 △대구 32만898건 △경남 25만9925건 △울산 24만6208건 △강원 21만88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자보수 요청 건수의 증가는 울산과 인천, 충남, 전북, 경북 등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건설 준공 실적이 약 43만호 내외로 균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과 함께 입주예정자들의 철저한 대응이 꼽히고 있다.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사전 방문을 할 때 하자를 대신 발견해 준 전문업체들을 대동하기 시작하면서, 입주예정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일부 건설사들은 하자보수요청이 지나친다는 이유로 입주예정자 본인 외제삼자의대동을 금지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기어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큰돈을 들여 하자투성이 주택을 받는 데다가, 이러한 하자들을 자비를 들여 찾아내야 한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사전방문 하자 점검이 활성화되면서 무자격 업체의 난립 또한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 의원은 "일생에서 가장 큰 목표인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 입주했는데, 심지어 그 하자조차도 자기 돈을 들여 찾아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다. 하루빨리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여 이러한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에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지자체로부터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미리 주택을 방문하고 하자를 발견할 경우 사업 주체에 보수공사를 요청하며, 사업 주체는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 알려야 한다.



조여은 기자

영양군 전국 100세 이상 장수마을 5위

10만명 당 영양군 59명 달해 100세 이상 노인인구 7000명

영양군이 100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 5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사진·서울 송파구)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인구 10만명 당 10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고흥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위권 안에 전남에서만 3곳이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0세 이상 인구는 2019년 4874명에서 2023년 7634명으로 56.6% 증가했다.

2023년 기준 남성 1298명(17%), 여성은 6336명(83%)으로, 100세 이상 여성 인구가 4.8배 이상 많다.

시·군·구 중에서는 전남 고흥이 10만명 당 78명으로 가장 많다.

△경남 합천 71명 △전북 고창 63명 △전남 담양 62명 △영양 59명 △경남 창원시 58명 △강원 화천 58명 △전북 무주 56명 △경남 의령 56명 △전남 함평 55명 △강원 고성 54명

△경남 함양 62명 △영양 60명 순이다. 6~10위는 강원 화천(58명), 전북 무주(58명), 경남 의령(56명), 전남 함평(55명), 강원 고성(54명)이 차지했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0명

2023년 100세 이상 인구 상위 및 하위 10개 시군구

순위	시군구	100세 이상 인구수 (인구 10만명 당)	순위	시군구	100세 이상 인구수 (인구 10만명 당)
1	전남 고흥군	78	220	부산 사상구	7
2	경남 합천군	71	221	울산 북구	7
3	전북 고창군	63	222	대구 달서구	6
4	전남 담양군	62	223	경남 김해시	6
5	영양군	59	224	경남 창원시	6
6	강원 화천군	58	225	울산 중구	6
7	전북 무주군	58	226	경기 오산시	5
8	경남 의령군	56	227	부산 강서구	4
9	전남 함평군	55	228	울산 남구	3
10	강원 고성군	54	229	경북 울릉군	0

*자료 : 통계청

2019~2023년 100세 이상 인구 현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남자	808	869	1,056	1,121	1,298
여자	4,066	4,755	5,507	5,850	6,336

*자료 : 통계청

심우정 검찰총장, '野 탄핵 추진' 반발...

특정사건 수사 검사 탄핵
검찰 중립성 영향 미친다
검사 씻을 수 없는 불이익

심우정 검찰총장은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움직임이 현실화 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총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관련 입장을 밝혀달라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탄핵이 시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지금 저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서울중앙지검장도 국민에 대한 안전을 거의 총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다 물려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저희들이 정말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심사숙고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 후 심 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의석수는 180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야권 단독으로 탄핵 발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심 총장은 "탄핵이 되면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도 탄핵 재판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며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 나중에 기각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업무를 못 하기 때문에 사법 작용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떠한 외부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김대중 정부 이후 약 23년 만이다.

헌정사 7번의 검찰총장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총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

첫 검찰총장 탄핵안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당시 김도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부결됐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1999년에는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 부결됐다.

1999년과 2000년에는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고, 2001년에는 신승남 당시 총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질의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구·경북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수두룩

최근 5년간 전국 308개 업체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실 적발
임이자, 시설 점검 9%대 그쳐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한 대구·경북 공해 배출업체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사진)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

정별로 보면 대구경(대구·경북)이 50개소로 전북정(75개

소), 원주정(64개소)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한강정(37개소), 영산강정(30개소), 낙동강정(24개소), 금강정(22개소)이 뒤를 이었다.

대구정 소관 업체의 위반 유형을 보면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35건, '철치(변경) 미신고' 15건이었다.

이 중 70%인 35건이 '이행·개선 명령'을, 15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반면 최근 5년간 대구정의 평균 현장 점검은 9.4%로 전북정(100%), 영산강정(20.5%), 낙동강정(10.6%)에 미치지 못했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 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뿐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관리 부실에 따른 하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초중 23곳 문닫았다

정성국, 폐교는 범국가적 문제
저출생 문제특단 대책 세워야



최근 5년간 대구와 경북지역 초·중학교 23곳이 폐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탓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시도별 초·중 등 폐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중학교 3곳이 문을 닫았다.

경북은 초등학교 15곳, 중학교 5곳 등 20곳이 폐교했다.

경북의 폐교 수는 전국에서 강원(22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초등학교 101곳, 중학교 30곳, 고등학교 6곳 등 모두 137개 학교가 사라졌다.

이 가운데 80%가 넘는 112곳이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문 닫는 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약 58만명(약 13%)이 감소하고, 이후 감소 폭이 확대돼 2038년까지 초등 약 88만명(약 34%),

중등 약 86만명(약 4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저출생 여파로 올해 1학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대구 3곳, 경북 27곳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157곳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학교는 그 지역의 구심점이라는 점에서 통합되거나 폐교가 되는 것은 범국가적 문제"라며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마저 줄고 있어 학교 폐교 현상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1위 시추기업 '솔림버거'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여

석유공사, 지명입찰 3개사 경쟁 최종 선정
탐사시추 핵심 작업 이수검층 맡아 진행



세계 1위 시추 기업으로 꼽히는 솔림버거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21일 김원익(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솔림버거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시추 이수검층 용역 기술평가를 진행했다.

이수검층 용역 입찰은 지명입찰 형태로 진행됐는데 지명영

체 3개사 중 솔림버거가 최종 선정됐다.

석유공사 기술심사 결과 솔림버거는 장비와 기술자 경력 등 기술평가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수검층은 시추 구역의 암석과 유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탐사시추의 핵심 작업으로 꼽힌다.

정확한 가스 데이터를 파악할수록 저류층 평가 역시 정확히 이뤄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잠재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생산 구역을 찾아낼 수 있다.

피싱과 P&A 용역은 원유 시추 회사인 베이커 휴즈 싱가포르 법인이 맡게 됐다.

피싱은 유정에 빠진 장비 등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이고 P&A는 시추공을 폐쇄하는 작업이다.

임미애, "산림청 산지관리 실패 축소·은폐 의도"

감사원 행안부 산사태인데
산림청만 토사유출 주장...

감사원이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 집계한 산사태 인명피해의 절반에 대해 산림청이 산사태 피해가 아니라고 부정,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사진)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3년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7건이며 인명피해를 13명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4월 발표한 감사원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는 13건이며 사망자는 26명이다.

산림청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감사원 집계보다 6건 줄었다.

감사원에는 집계됐지만 산림청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6건의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가 아니라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감사원 집계보다 2건이 추가돼 15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서 추가한 건은 청주시 남이면 석관리와 세종시 연동면 송음리에서 발생한 산사태이다.

산림청은 또 2022년 가리왕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마저 부정하고 있다.

9월 산림청은 '2018년 이후 2024년까지 산사태 발생건수'를 묻는 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산림청은 '위 기간 중 산사태 발생 내역 없음'으로 답변했고 '토사유출 4천만건'이 발생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임 의원이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는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산림청이 과수원 지반붕괴가 원인이라면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구분한 예전 효자면 백석리의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지 정상부에서 토층붕괴로 시작된 토석사동이 과수원 지반을 붕괴시키며 이동해 마을을 덮친 산사태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사태 피해를 축소, 산림청의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시 책임 소재 때문이지 축소·은폐 의도는 절대 아니다. 통합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산림청이 먼저 제안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하는 디지털 산사태 대응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면 고속도로 낙석으로 인한 토사유출도 대부분 일반적 통용 단어인 산사태로 간주하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다. 산지가 아닌 농지나 도로, 산지전용지에서 발생한 경우 토사유출로 구분한다"고 덧붙였다.

국정감사 취재반

月刊 **정치와사람**

곧 독자 결의로 다가갑니다!

대구경북 성범죄 증가 전담인력 밀바닥

대구 경북 경찰서 2곳 중 1곳 관리전담 인력 단 한명도 없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구와 경북의 경찰서 2곳 중 1곳은 관리전담 인력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병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의 올해 9월 현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4906명으로 2019년(2901명)보다 69.1%(2005명) 증가했다.

경북경찰청은 5193명으로 62.7%(2003명) 늘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의 관리업무 전담 경찰관은 대폭 감소했다.

2019년 성범죄 등록대상자 관리담당자가 153명이었던 대구의 경우 올해 9월 현재 10명으로 93.4%(143명)나 줄어 동부경찰서는 2명, 서부·남부·북부·수성·달서·달성·성서·강북경찰서는 각각 1명의 관리 인력이 배치됐으나 중부와 군위경찰서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경북경찰청 역시 136명이던 담당자가 93.3%(127명) 감소했다.

23개 경찰서 중 구미(2명), 경주·포항북부·포항남부·경산·안동·김천·칠곡경찰서에 각각 1명씩 배치됐을 뿐이다.

나머지 15곳(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도·영덕·울진·봉화·예천·성주·청송·영양·고령·울릉)에는 전담 경찰관이 없다.

관리전담 인력 부족으로 전국의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의무 위반 건수는 증가했다.

2021년 4640건에서 2023년 6912건으로 2년새 49%(2272건) 증가했으며, 올해들어 9월까지 6350건이 적발됐다.



법무부의 성범죄 등록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재등록된 사건은 2019년 1108건, 2020년 1219건, 2021년 1106건, 2022년 1378건, 2023년 1423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고, 올해도 8월 기준 1128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나눠 맡고 있으며, 경찰청은 신상정보 수집과 사진 촬영, 주기별 대면 점검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한 의원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매년 누적되는 만큼 관리 업무를 맡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전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국민 불안 해소와 재범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감시 CCTV '유명무실'

최근 5년간 발견율 0.3% CCTV 제 역할 다 못해

최근 5년간 산불감시 CCTV 발견 산불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사진)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산불 3199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8건(0.3%)이다.

연도별 산불 발생 건수는 △2019년 653건 △2020년 620건 △2021년 349건 △2022년 756건 △2023년 596건 △2024년 9월까지 225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산불감시 CCTV로 발견된 산불은 △2019년 2건

(0.3%) △2020년 0건 △2021년 1건(0.3%) △2022년 0건 △2023년 5건(0.8%) △2024년 9월까지 0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 산불 176건 중 3건(1.7%) △충북 101건 중 1건(1.0%) △북부지방산림청 89건 중 4건(4.5%)이 산불감시 CCTV에 의해 발견됐다.

서울특별시 외 19곳의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CCTV에 의한 산불은 단 한건도 없었다.

전국에 설치된 산불감시 CCTV는 총 1446대다. 매년 17억 9700만원의 예산이 노후카메라 교체(9억 7200만원), 유지보수(8억 2500만원)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십 수억의 국민 혈세를 들여 설치돼 운영되는 산불감시 CCTV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산불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산불감시 CCTV의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CCTV가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농·축협 임직원 징계 범죄집단 오명...

임직원 징계 316명... 전국 4위 말로만 외치는 희망 농촌건설 횡령 등 중징계 무려 150명...

최근 5년간 경북 농·축협 임직원 징계건수가 31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2019~2024년 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은 총 306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남이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 506명, 전남 427명, 경북 316명, 충남 302명, 전북 299명, 강원 136명, 충북 106명 등 순이다. 중징계(해임, 직무의 정지, 징계 해

직, 정직, 감봉) 인원은 경기 267명, 경남 262명, 전남 215명, 경북 150명, 충남 148명, 전북 135명으로 조사됐다. 전남 지역은 임직원 징계가 전국에서 세번째 높았고 이 중 중징계는 5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중 '해임' 사유로는 '급여 부당지급(업무상 배임) 2명',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 1명', '고가점등 등 대출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으로 1명',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1명' 등 총 5명이다.

김선교 의원은 "성범죄, 횡령, 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농·축협 임직원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농협이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기계 사고 경북 1위 5년간 116명 숨져

사고 건수 1487건 전국 최고 농업인 대상 예방 교육 필수

경북에서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116명이 숨졌다. 사고 건수는 1487건으로 전국 최고다.

경남 1003건, 전남 932건, 전북 697건, 충남 501건, 경기 492건, 충북 282건 순이다. 사망자도 전남(71건), 경남(64명), 충남(40명), 전북(36명), 경기(23명), 충북(19명)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5년간 농기계 사고는 모두 5907건이 발생, 398명이 숨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촌진흥청

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농기계 사고는 전국에서 총 5907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8년 1057건, 2019년 1121건, 2020년 1269건, 2021년 1076건, 2022년 1384건이 발생했다. 4년 사이에 약 31%가 늘어났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사고는 2018년 86명, 2019년 83명, 2020년 78명, 2021년 79명, 2022년 72명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농기계 사고는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수"라며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 임업 재해 사상자 819명 전국 2위

최근 5년 한 해 평균 임업 재해 사상자 1000여 명...

최근 5년간 한 해 평균 임업 재해 사상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사진) 국회의원(사진·속초·인제·고성·양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3년 한 해 평균 1000여 명의 임업 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역 별로는 강원도가 1029명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북 819명, 경남 635명, 충북 493명, 전북 40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 별로는 50~59세의 경우 1662명의 사상자가났다.

60세 이상에서 285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상자의 91%가 50세 이상 중장년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기간이 짧은 종사자일수록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발생한 재해 건수가 4716건으로 전체 재해 건수의 95%에 달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산림직업 현장은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인력과 장비가 신속하게 투입되기 어렵다"며 "매년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임업인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취재반



대구지검·고검장, 호화 관사 "법무부서 결정할 일"

지급된 관사 70평 가까운 아파트 호화 관사 지적...



국민평형 이상의 대구지검·고검장 관사가 호화 관사라는 지적이다.

대구지검·고검장은 "법무부서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다.

박은정(사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고검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사가 크다. 지검·고검장 등 64%가 국민평형 이상이다. 대부분 지검장이 혼자 사는데 지방 관사가 왜 이렇게 커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관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역별 몇 채가 있다고 했다. 법원은 상세하게 됐다"며 "검찰 법원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거만한 태도다. 검사는 혼자 살면서 큰 평수에 사는 것은 검찰관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특권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고 질문했다.

신봉수 대구고등검찰청장은 "법무부서 결정할 일"이라며 "저희 관사가 2000년도에 지어졌다. 상당히 노후화 됐다. 시세와도 많이 차이 난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구고검장과 지검장에 각각 지급된 관사가 70평에 가까운 아파트로 제공돼 호화 관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의 관사는 '대구수성하이츠'며 창원지검장은 60평대, 대전지검장은 50평대 관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경찰관 범법 행위 만연

최근 5년간 139명 대구 76명 경북 63명...공직기강 세우라

최근 5년간 현행법을 위반해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경찰이 14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대구 76명, 경북 63명이다.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기소 처분은 매년 증가했다. 2019년 8명, 2020년 12명, 2021년 13명, 2022년 20명, 2023년 23명으로 집계됐다.

축구명문 현풍고 축구, 전국체전 준우승

대구FC U-18 현풍고가 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 고등부 준우승을 차지했다. 현풍고 축구부는 지난 17일 경남 김해 진영공

설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서울대표인 영등포공고에 0:2로 패배, 준우승을 차지했다. 현풍고는 이번 대회에서 16강에서 경기도 대

표인 화성시U18을 2대1로 제압했다.8강에서는 인천대표인 인천 부평고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했다.4강에서는 홈팀인 경남대표인 창녕고를 2대0으로 승리해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에서는 서울 영등포고에 0대2로 아깝게 패배해 준우승에 그쳤다. 조여은 기자



‘대구·경북 통합’ 추진 합의문 서명... 2026년 7월 출범

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통합합의문 서명 중재안재개 연내 특별법 마련, 입법 절차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재개되면서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 통합 당사자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이를 지원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했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을 공식 추진키로 합의한 이후 4개월 만이다. 당시 이들은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고,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가장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은 통합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고,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하면서 논의는 중단되는 듯했다. 행안부가 최근 대구와 경북에 중재안을 제시

하고, 양측이 모두 수용 입장을 내놓으면서 통합 추진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공동 합의문을 보면 대구와 경북은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이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간 7가지 합의 사항도 담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폐지하고, 중정의 관할 구역을 통합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 특별시’로 한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 특별시에 광역행정 등에 관한 총괄·조정·집행 기능도 부여한다. 이견을 보였던 청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대구 시청사,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각각의 청사는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능을 배분하고,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는 서울시에 준해 설정하고, 부시장

의 사무 분장과 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의회 소재지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대통령령으로 한다.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양 시·도 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구와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회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군위군 우보면, ‘군부대 이전 한마음 한뜻으로’ 군위군의 군부대 유치가 활화산이다. 지난 17일 우보면 복지회관에서 “군부대는 우보로!”라는 구호와 함께 군부대 유치에 열의를 담은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삼국유사 청춘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에 앞서 “우보가 딱이야”를 가사한 노래에 맞춰 응원 피켓과 머플러를 이용하여 군부대 이전의 마음으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불렀다. 김진영 군위군수는 “군부대 이전은 우보의 미래가 달린 결정인 만큼 한마음 한뜻으로 군위의 미래를 완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군위군 제공)

온(溫)세상을 잇는 효행교육 페스티벌

대구교육청, 세대 간 소통 화합 효과 전통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구교육청은 21~24일까지 대구학생문화센터 2층 실내체육관에서 ‘효와 전통의 울림, 온(溫)세상을 잇는 효행교육 페스티벌’을 운영한다.

행사는 학생들이 웃어른에 대한 공경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고 생활 속에서 전통 효행의 가치를 실천,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통 효행활동 △디지털 효행활동 △전래놀이 △추억은 방울방울 등 4개의 주제별 구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전통 효행활동 구역에서는 스캘리그래피 가훈 책갈피 만들기 △자개 열쇠고리 만들기 △전통통채 만들기 △전통생활도구 체험 등 4개의 체험관을 운영한다.

디지털 효행활동 구역에서는 디지털 효행온(ON)MBTI 체험관을 통해 사전에 가족들의 MBTI 성격유형을 검사해 행사당일에 (조)부모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가족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시간을 가진다.

전래놀이 구역에서는 △제기차기 △사방치기 △방석 딱지치기 △투호놀이 등 건전한 전통놀이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사진은 ‘효와 전통의 울림, 온(溫)세상을 잇는 효행교육 페스티벌’을 운영 모습(사진=대구교육청 제공)

추억은 방울방울에서는 △전통 한복과 교복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인생네컷 △옛날 과자와 문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추억의 문방구 등 학생들이 (조)부모들의 추억을 경험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인다.

60세 이상 노인을 봉사자로 위촉 후 전래놀이, 전통생활도구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체험을 돕도록 해 세대 간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행사는 대구 시민 누구나 자녀를 동반해 참여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 효행교육 페스티벌을 통해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바른 인성과 가족공동체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길러주면 한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대구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문제 많다

김종일, “부실계획·예산낭비·약취·각종 논란 관련, 개탄스럽다 비판

대구 서구에서 추진 중인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김종일(사진) 대구 서구의원은 18일 열린 제 2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와룡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부실 계획, 예산 낭비, 약취 등 각종 논란과 관련된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구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와룡산 동편 30

ha 산림 부지에 매입비 85억, 설계·공사비 40억 원 등 125억 원을 들여 산림 휴양·체험·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서구의 주요 장기 개발 사업이다.

김구의원은 먼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과업이행요청서가 다른 지자체의 내용을 참고하고 과업 내용에 해당 지자체명까지 그대로 옮긴 점을 지적했다. 그만큼 구에 맞지 않는 부실한 사업이 예고됐다는 의견이다.

휴양시설이 와룡산 매립장에서부터 가르뱅이 공원 옆을 지나 송전선로 부근에 조성돼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을 우려한 시민들이 이용을 꺼릴 것이라는 부분도 짚었다.

이외에도 조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관련한 개선이 미흡한 점, 부지 매입비가 공사비의 두 배를 넘어 사업 취지가 혼란스러운 점 등을 지적했다.

김구의원은 “송전선로, 약취 등과 관련해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구소멸 대응자금 30억 원이 해당 사업에 투입된다”며 “시설 공사비까지 당초 구가 계획한 40억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9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예산 낭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태용 기자



늘봄행정실무사 채용 늘봄학교 탄탄대로

경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늘봄행정실무사 370명 채용

경북도교육청이 이달부터 교육공무직원 늘봄행정실무사 370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들은 내년 3월 1일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늘봄행정실무사는 기존 방과후·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 운영하기 위한 교사가 아닌 행정 업무 전담 인력이다.

늘봄학교 운영계획 수립과 행정 업무 처리,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180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선도학교를 운영했다.

2학기부터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내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 운영된다.

채용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4~28일까지다. 지역교육지원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장소를 지참한 대리 접수도 가능하다.

채용 과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전형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 발표된다. 합격자는 내년 3월 1일자로 도내 공립 초등학교 369교(6학급 이상)와 특수학교(경산자인학

교) 1교에 배치된다. 늘봄행정실무사가 배치되지 않는 나머지 학교에는 기간제 늘봄행정실무사 98명(공립 초등 96명, 공립 특수 2명)이 배치되며 내년 1월 이후 지역별 늘봄지원센터가 별도 채용한다.

국립초등학교 1교와 사립 초등학교 2교, 사립 특수학교 5교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해당 학교가 자체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경북도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늘봄지원실장(임기제 교육연구사) 112명도 겸임·배치해 늘봄행정실무사와 함께 늘봄 업무 전체를 수행토록 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늘봄행정실무사 채용으로 늘봄학교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기쁨'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부사장 조여은 | 편집국장 김현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시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주 포항
영천 영덕
청송 영양
울진 울릉

울진군,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 시동

민관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연구기관, 시설·장비 지원 등
지자체, 행정·인력양성 지원
협약 이행 실무협의체 구성



울진군은 10월 2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개최된 동해안 수소경제 포럼에서 손병복 울진군수,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14개 수소산업 관련 대학, 기업, 연구기관과 함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북도, 울진군, 포항시, 삼성물산, 테크로스 위터엔에너지, HD현대플라스코, 서울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일대학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영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참여했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경상북도 내 청정 원자력 수소 생태계 구축,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앵커 기업과 대학 간의 전략 기술 공동 개발(M&LS), 그리고 수소 전문 인력 양성으로, 이를 위해 대학은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기반 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은 R&D 과정에서 양성된 인력의 적극적인 채용을 추진한다.

연구기관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 지원과 R&D 연구 기반 구

축 및 인력 양성 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 실질적이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해, 청정 원자력 수소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앵커기업, 협력업체, 대학이 공동으로 중대형 R&D를 기획하고, 지역의 혁신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수도권 소재 대학과 기업의 과제 참여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종합적 혁신역량 강화와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대학의 수소인력양성 및 신기술 육성을 위한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협약은 울진이 수소경

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울진이 원자력수소 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전해 나갈 기대하며, 원자력수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울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경수 기자



영양 국제싱크 착한가게 지점

영양군 영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함께모아 행복금고' 정기 기부예에 동참한 국제싱크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 꾸준히 정기기부하는 가게로, 기부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배분되어 관내 가구 중 긴급한 위기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된다.

국제싱크 김명국 대표는 "평소에 알지 못하고 있었던 좋은 사업을 알게 되어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청송 '노인의 날' 기념행사

청송군은 10월 17일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 경로당 회장·총무,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회원들의 식전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열었다.

기념식은 노인강령 낭독, 청령장 전달,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 기념사·축사·격려사가 차례로 진행됐다.

경주시 알릴 관광기념품 공모 작품 선정

115점 접수 중 11점 선정해
대상 '경주의 밤 시리즈' 등



현한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라라랜드 김성향 씨의 '침성대 콘센트 무드등'이 선정됐고 은상은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경주의 '경주밤(Bomb) 입욕제'가 수상했다.

동상에는 '침성대 향초위머'와 '신라 무드등'이 뽑혔고, 장려상에는 '골든시티 캔들홀더', '수막새 풍경 도어벨', '골든시티 캔들 4종', '신라의 미소 실링 인장세트', '경주상징 카드스티커', '본디 멍기가 선정됐다.

경주시는 제27회 경주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 11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26~27일까지 접수된 115점의 작품 중 우수작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된 작품은 민·공예품 41점, 공산품 59점, 용·복합 상품 8점, 식품 7점으로 다양했다.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장려상 6점 등 총 11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은 아트리나-윤제민 씨의 '경주의 밤 시리즈 무드등'이 차지했다.

불국사의 야경과 신라 문화재를 소재로 한 감성 나무 무드등으로, 실루엣을 입체적으로 표

현한 디자인과 높은 실용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라라랜드 김성향 씨의 '침성대 콘센트 무드등'이 선정됐고 은상은 (주)한화호텔앤드리조트경주의 '경주밤(Bomb) 입욕제'가 수상했다.

동상에는 '침성대 향초위머'와 '신라 무드등'이 뽑혔고, 장려상에는 '골든시티 캔들홀더', '수막새 풍경 도어벨', '골든시티 캔들 4종', '신라의 미소 실링 인장세트', '경주상징 카드스티커', '본디 멍기가 선정됐다.

올해 공모전에서는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에서 일반인들도 심사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기념품 구매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 현장 투표에는 159명이 참여했으며, 같은 기간 온라인 투표에는 2555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관광객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통해 기념품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내실 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울릉, 자동차세 체납차량 단속

울릉군은 성실 납세포토 조성을 위해 오는 21~24일까지 2024년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나선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를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차량은 영치에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차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연2회(6·12월) 고지하며 1회 체납하면 영치예고, 2회 이상 체납 할 경우 번호판 영치,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 시 영치 후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일제 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환 기자

'제5회 청송야송미술대전' 시상식 열려

故야송 이원좌 화백 기려
347점 출품...269점 수상

'청송야송미술대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화가인 고(故) 야송 이원좌 화백의 예술혼을 기리고 그 뒤를 잇는 많은 예술인들의 창작의지를 고취하며, 전국의 신진 문화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미술 작품 공모전이다. 올해 대전에서는 한국화, 서양화(수채화 포함),

서예(문인화 포함) 등 3개 부문에서 5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작품을 접수했으며, 총 347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후 1·2차 심사를 거쳐 총 269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대상은 서양화 부문에서 최대웅 작가의 '신선대와 장군부위'가 수상했다.

이 작품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청송 주왕산의 신선대를 함께 묘사해, 오랜 세월을 지내 온 주왕산의 깊은 역사성을 강조했다.

최우수상은 한국화 부문에서 배정옥 작가의 '햇살 머문 자리, 서예 부문에서 박태경 작가의 '되개 선생시', 이혜자 작가의 문인화 '도도'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우수상 16점, 특선 89점, 입선 16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야송미술대전은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이 미술대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영덕 남정면 해양정화 활동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영덕군연합회 회원 50여 명은 지난 18일 남정면 구계항에서 대대적인 해양정화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자들은 스쿠버 장비와 크레인 등 동원해 수중 페어망과 페타이어 등의 해양쓰레기를 집중 수거하는 등 청정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가 기부한 옷들을 업선해 외국인 선원과 나누는 행사와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문자가자미를 방류하는 행사 등의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으로 함께 펼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 김도수 회장은 "참여해 주신 수산업 경영인들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도움을 주신 영덕군과 경상북도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포항시 청년의 날 기념식 관련 행사 개최

군 임시주차장 조성 방침
주말 기간 차량 통제·안내

남행사를 확대 시행해 올해 처음으로 청년의 날 기념식을 열며 청년세대를 축하하고 그들의 꿈과 열정을 격려했다. '우린, 새파란 청춘!'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년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은 영상 시상영문 후 포항 청년 4인의 개회 선언이 기념식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년의 권익증진과 청년정책 발전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청년들에게 시상을 진행하는 등 청년이 주인공이 돼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기념식이 진행됐다.

장상길 부시장은 "포항청년의 날 기념식이 앞으로 청년들이 권리를 찾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포항에서 꿈꿀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포항시는 지난 20일 제1회 포항시 청년의 날 기념식과 청년 기업 페스티벌을 포함중앙상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상길 부시장을 비롯해 이상휘 국회의원, 사·도의원, 청년정책 유공자,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포항시 청년정책 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정된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시는 청년의 날을 기념해 매년 진행해 오던 기

영천, 하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12월 20일까지 집중 징수 설정
고액·상습 체납자 행정처분

을 해왔으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이식 개선 및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먼저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자진납부 기간을 부여한 후 미납부자에 대해 징수예고 및 조치를 취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신진호 소장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실납부를 통한 재정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단수나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은하 기자

영천시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에 대한 집중 징수 기간을 설정해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물 공급과 처리를 위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어, 상·하수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20일까지를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상수도사업소장을 총괄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동안 경제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단수 조치는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

경산 구미
김천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김밥의 모든 것... '김천김밥축제' 첫 개최

26~27일 사명대사공원 일원 김밥축제 컨셉 '소풍' 첫 행사 지역 유명 로컬 맛집 위주 섭외 김천8경 지역 관광 홍보 연계

고 있다. 지역의 시민보다 외부의 관광객에게 더욱 알려진 김천김밥축제 이야기를 소개한다. 김천은 전국에 몇 안되는 시 승격 7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영남의 중소도시로 경북혁신도시와 KTX역이 있는 국토 교통의 요충지이자 전국 포도,호두,자두 최대 생산지이다.

서 '김천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김밥천국'이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김밥축제 마스코트도 인기가. 물체의 끝부분을 뜻하는 '꼬투리'의 경상도 사투리로 일부러 찾아 먹는 사람이 있을 만큼 매력적인 부위인 김밥 꼬투리가 관광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김천의 모습과 닮았다는 의미다.

김천시는 26~27일까지 사명대사공원 및 친환경경생대공원 일원에서 2024 김천김밥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행사전부터 각종 온라인과 매스컴에 큰 화제가 되어 처음 개최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호응과 기대로 설레게 하

하지만, 깊은 역사와 우수한 접근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10년 넘게 이어온 지역 특산품 포도(샤인머스켓), 자두를 활용한 과일 축제는 외부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축제가 아니기에 새로운 축제가 필요했다.

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어린시절 소풍, 체육대회 같이 특별한 날의 설렘과 추억, 정겨움을 떠올리게 한다.

시는 꼬달이를 예쁜 김밥은 친구들에게 양보하고 빼빼죽 꼬다리만 챙겨 먹는 배려심을 가진 아이라고 소개하며, 특별한 매력을 소개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학생, 사회 초년생에게는 우리의 일상을 위로해주는 다정한 음식이자 K-콘텐츠 확산에 힘입어 세계 곳곳에서 김밥의 인기가 뜨겁기에 김밥 축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김밥축제에서는 꼬달이 팝업스토어를 오픈해 꼬달이 도시락통, 인형, 마그넷, 카링, 돗자리를 판매해 김밥축제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꼬달이 굿즈를 판매할 예정이다.



고령청소년문화의집, 대회 참여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9일, 경북 영주시 선비세상에서 열리는 "2024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들이 공연분부에 '포커스', '판타지아' 2개 댄스팀이 참여해 또래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응원하며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가졌다. 짧은 연습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학교 방과 후, 문화의집을 찾아 꾸준한 연습한 동아리팀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다닥 똑딱! 요리동아리' 청소년들은 비공인분부에서 다양한 문화 어울림을 주제로 '한국 인절미=베트남 바나나떡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다른 지역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됐다.



성주 용암 적십자회, 바자회

성주 용암면 으뜸적십자회는 18일 용암농협 공판장에서 2024 용암면 으뜸 적십자회 이웃사랑 바자회를 개최했다.

가래떡, 달걀, 참쌀, 콩나물, 버섯, 고구마 등 지역 농산물과 이불, 개량한복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빼빼장국, 두부, 어묵, 부추전, 호박전 등을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행사장을 방문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연말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처음 성공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두 번째로 열리며 용암면을 대표하는 주민 주도형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문체부 주최 한국관광공사 주관 최대 5년까지 지원...DMO 사업

청도군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 지원 사업' 공모에 2024년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지역관광추진조직 업무를 수행중인 사단법인 경북시민재단은 총 사업비 200백만 원(국비 100백만 원, 군비 100백만 원)으로 35개소(약 60명) 주민 사업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 역할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7월에는 '청도의 콘츨리 함'을 판매한다는 콘셉트의 DMO 브랜드 '콘츨리 스토어'를 개발하였고 지역 세미나를 통해 DMO의 필요성과 목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자리를 가졌다.

9월에는 홈페이지(countrystore.imweb.me)를 개설해 지역 관광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11~13일까지는 청도 대표 축제인 반시 축제에서 DMO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운영해 많은 방문객과 소통하며 청도의 다양한 자원과



DMO의 목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10월 19일에는 청도읍성 밭기 행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야간관광 활성화하기 위해 무소음 걷기, 영화 시청, 청년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해 많은 참가자의 호응을 얻었다. 장미화 관광정책과장은 "DMO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이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청도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청도군은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지원되는 DMO 사업을 활용해 지역 관광 자원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 기자

칠곡늘배움학교 250여명 문해한마당

'수니와 7공주' 탄생 콘텐츠 성과 문해전시회 주축으로 진행 구성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은 2024년 칠곡늘배움학교 문해한마당을 교육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2007년 2개소에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고 발전해 2024년 현재 23개소 250여명이 참여하는 칠곡군 성인문해교실 칠곡늘배움학교는 정규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한 어르신을 위한 한글교육과 정으로 운영되어 대통령 연화장에 사용된 칠곡 할매글꼴을 비롯해 국내 최고령 랭그룹 수니와 7공주를 탄생시키는 등 많은 문화콘텐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칠곡군 평생교육의 일환인 성인문해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문해전시회를 주축으로 진행됐다.

각 23개 문해마을, 250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시화, 일기, 편지글 등을 전시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어르신들이 한글실력을 겨루는 문해골든벨을 개최했고, 잘 걸지 못하는 어르신들까지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골든벨 결승에 임하는 모습에 배움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또한 NH 농협 칠곡군지부와 연계해 아침밥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함께해 군지부에서 준비한 쌀 1KG 300여개와 한여농과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주먹밥 300인분을 나눠주며 그 의미를 더했다.

다음달 1~3일 '구미라면축제' 개최

구미라면축제 지속가능성 선언 한국 라면 역사...구미서 전시회

구미시는 대한민국 라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라면부지 컬렉션'을 구미역에서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컬렉션은 구미라면축제에 앞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사전행사다.

라면 부지 수집가로 유명한 거제도 의성철 씨가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수집한 6000여종의 라면부지 중 300여장이 선별돼 전시된다. 전시장소는 구미역사 대합실 앞 통로로, 13m 규모의 전시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다양한 주제의 라면부지들을 선보인다.

추억의 라면부터 용기라면, 수출용 라면 등 흥미로운 구성으로 구미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지역 특화 자원인 '갯뽕' 라면'을 활용해 라면 축제의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라면의 성지로서 구미를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2024 구미라면축제 지속가능성 선언식'을 진행하였으며, 축제 기간 중 사용되는 라면 부지도 제로웨이스트 샵을 통해 재활용된다. 방문객들은 나만의 라면 만들기 체험, 라면을 주제로 한 이야기, 라면전문가와 함께하는 라퀴즈, 청년이 주도하는 라면박물관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문화로, 역후 관광, 금리단길까지 연결돼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송영주 기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고령군에 기부하세요!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와 지역활성화에 활용하는 제도

- 기부대상** 개인(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령군이 아닌 고령군에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방법** [온라인] 고향사랑기부금 [대면] 전국 농협은행
- 기부혜택**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

※ 고향물 쿠폰을 선택하시면 수박, 전통장류, 딸기잼 등 27개의 다양한 특산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문의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054-950-6803 **고령군**

안동 영주 문경 상주 예천 봉화 의성



상주 청운건설, 식품 후원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7일 김정식 청운건설(주) 대표가 '사랑의 라면 100박스'를 후원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했다. 김정식 청운건설 대표는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인연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후원을 이어 오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기둥이 될 아동들이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말했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광호 관장은 "날씨만큼 추워진 경계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 실천을 위해 헌신하시는 청운건설(주) 김정식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고 말했다.



예천군 출향인 기부 동참

예천군에서 예천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출향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천면 출신인 기양금속 배명지 대표는 지난 19일 김천중학교 총동창회에서 예천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하며 고향사랑에 동참했다. 배 대표는 "주변에 예천사랑기부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고향 예천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군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영주 휴천3동, 환경정비

영주시 휴천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지난 20일,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이른 새벽부터 영주농협학교 급식지원센터 앞부터 한정교까지 이어지는 지천로2번길 구간 하천변을 중심으로 쓰레기 및 낙엽 수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26일 개최되는 '제1회 주민화합 적서길 걷기대회'를 앞두고 추진됐다. 황영오 공동위원장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천 인근 도로와 인도변이 많이 깨끗해져, 주민들이 더 즐거운 기분으로 하천 주변을 다닐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영주시, SRT 어워드 올해 최고 여행지 선정

지난 2022년 이어 올해 선정 9월 독자 12000명 심사 참여 외나무다리 무섬마을 큰 호응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입지



영주시가 SRT 매거진이 주관하는 '2024 SRT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의 여행지 대상 수상하며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했다.

SRT 어워드는 서울 강남 수서빌 고속열차인 SRT 차내지로,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하는 SRT 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가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의 최고 여행지 선정됐다.

이번 2024년 SRT 어워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독자 1만 2천여 명이 직접 심사에 참여했으며, 영주시는 독자들의 지지는 물론 여행작가, 여행기자 등 전문가 평가, 에디터 편집, 방문 관광객 데이터베이스 분석,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편의성 평가 등을 통해 '2024 SRT 어워드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서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비롯해 전통가옥과 외나무다리가 어우러진 무섬마을, 핫플레이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관사골과 영주 어드벤처 캐슬 등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계승하고 있

는 점과 체험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는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 역사와 문화도시이며, 체험 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

화를 대표하는 도시,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SRT 매거진은 2016년 12월 개동한 서울 강남 수서빌 고속열차인 SRT의 탑승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매월 약 4만 5천 부 발행, 월평균 회독률 350

만을 기록하는 문화여행 전문 잡지로, 매년 SRT 매거진 어워드를 선정해 새로운 여행문화를 확산,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는 영주시를 비롯해 영월, 목포, 태백 등 10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영주시가 '2024 SRT 어워드'에 이름을 올렸다. 전상기 기자

'최고당도 감홍사과를 찾아라' 행사 열어

문경감홍사과연구, 마케팅 강화 22.5브릭스 애플스타 대상 수상

문경감홍사과재배연구회는 지난 16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문경사과연구소에서 최고당도의 감홍사과를 선발하는 최고당도 감홍사과를 찾아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상은 22.5브릭스의 애플스타가 수상했고, 뒤를 이어 21.9브릭스 바오랍농원가 금상을 수상했다.

20.8브릭스의 꿈나무농원이 은상을 수상했다. 문경시에서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감홍사과는 탐스러운 크기와 검붉은 색상을 띠고 있어 형태부터 남다르다.

일반사과의 당도 10~15브릭스에 비해 감홍사과의 당도는 평균 17브릭스에 달하며, 10월 중순 무렵부터 약 한 달간 맛볼 수 있어 더욱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감홍사과는 재배가 어려워 다른 지역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문경시가 감홍사과의 매력과 시장 가치를 알아보고 꾸준한 재배기술 개발과 지도,

농가 지원을 통해 고품질의 감홍사과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감홍' 주산지가 됐다.

감홍사과 수확시기에 맞추어 2024 문경사과축제가 문경새재 일원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개최되며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노진수 문경감홍사과재배연구회장은 "올해 기상이 좋지 않아 감홍사과 재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문경 감홍사과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쁘다. 또한 올해는 문경시에서 프리미엄 감홍사과 마케팅 등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의 감홍사과 생산을 위해 우리 연구회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행사소감을 밝혔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감홍사과의 지속적인 재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한 고품질 감홍사과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의성군 고운사 일원서 '최치원문화제' 개최

신라시대 대문장가 업적 기념 올해 3회째 주요 내빈 참석해

의성군은 19~20일 양일간 최치원문화관 및 고운사 일원에서 진행한 제3회 최치원문화제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절여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서 힐링 시간을 제공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최치원문화제는 신라시대 대문장가 고운 최치원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상생과 통합을 주제로 매년 10월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최치원문화제에는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박형수 국회의원, 임미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경주최

씨 문중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거행됐다.

지역주민과 관광객 4천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의성 고운사 일원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지역 문인들의 시화전, 단촌할머니 그림전시회를 비롯하여 지역 청소년들 역동적인 태권도 및 댄스, 무용공연, 색소폰 연주 등 지역에 술인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산사음악회 1일차 공연에는 국악과 클래식을 비롯한 뮤지컬공연 및 대금연주와 통기타의 콜라보 공연, 대구시립무용단 블랙스완의 무용공연 등 지역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였다.

2일차 산사음악회에서는 폭발적인 성량의 젊

은소리꾼 최예림과 비보이의 콜라보, 뉴진스님의 EDM 공연 등 젊음과 흥이 넘치는 공연을 선보였다.

아울러 고운 최치원의 인백기전(人百千)정신을 기리는 인백기전 토크콘서트에는 에코프로 상임고문 이동채 회장이 참석하여 인백기전의 정신이 삶과 직업에 전달하는 시사점을 이야기하고,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이동의 편의성을 더했으며, 문화제에 참석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 및 소방인력을 비롯한 전문안전요원 및 의료인력 등을 배치해 흥이 넘치는 가운데 안전한 행사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박재성 기자

안동 빗물펌프장 자동화 구축

안동시는 올해 7월 구담 빗물펌프장을 끝으로 총 6개소의 '빗물펌프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했다.

후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이 마련돼 주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들어 갑자기 강한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로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빗물펌프장의 관리자가 선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 초음파 수위계 센서를 통해 위험 수위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운영하는 등 기존 수동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자동화 감시 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펌프 사전 가동태세를 확립해 자연재해로부터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주 기자

상주시,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 의회 제출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시장 "市 미래 선도할 모멘텀"

상주시는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475만원이 증액된 총 1조 3,149억 원 7,475만 원을 편성하여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1조 3,148억 원 보다 0.01%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1조 2,297억 원 대비 1억 7,475만원(0.01%) 증가한 1조 2,298억 7,475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증감이 없다.

상주시의 이번 추경 편성방향은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원포인트 추경으로,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의 시행계획에 따른 행

정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시정사업이 전제로 계획된 사업인 한국형 화이트존 정책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한 도심 재창조로 활력 넘치는 상주 건설에 의의를 두었다.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1억 5,000만원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지원(사전편성) 2,475만 원을 편성했다.

상주시장은 "통합신청사 건립사업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상주시의 미래를 선도할 모멘텀으로 시민의 열원이 담겨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이 상주시의 새로운 도약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개최하는 제22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여 11월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봉화, 70세 ↑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배부

야간 쉽게 인식 반사지 제작 고령운전자 약 3000명 수준

봉화군은 21일부터 봉화경찰서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배부한다.

스티커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파란색 바탕, 흰색 글씨로 '어르신 운전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며 야간에도 다른 차량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사지로 제작됐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운전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봉화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스티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65세 ~ 69세 운전자 중에서도 원하는 대상자는 받을 수 있다.

군은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 수와 고령 운전자에게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에 대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 배부를 통해 고령운전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양보와 배려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수요량에 따라 추가적으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봉화군에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약 3,000명(70세 이상 인구 중 약 35%)이다. 전상기 기자

月刊 정치와사람

곧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시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